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24)



오늘, 2017년 9월 16일, 7시 55분

알바노 모원 공동체에서

마리아 아르미다 로사 알파노 수녀님 선종

(MARIA ARMIDA SR ROSA ALFANO)

86세, 56년 간 수도 생활

오늘, 성 고르넬리오와 치쁘리아노 기념일에 시편 저자는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시편 112)라고 노래하게 합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사목적 사명을 기쁘고 소박하게 살아가신 로사 수녀님을 성부께 맡기셨습니다.

로사는 1931년 4월 3일에 성 카탈도(칼타니체따)에서 태어나 4월 5일에 성 스테파노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팔남매 중 첫째로 대 가족의 장녀로써, 가족 중에는 두 명의 형제 중 1명의 사제와 다섯 자매 중에서 한 명의 빠스토렐라가 있는데, 먼저 공동체에 들어온 쟈마수녀였습니다. 로사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수도회에는 형제 자매들을 키우시는 부모님을 도운 다음에 입회했습니다. 옷 수선을 청하거나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이들의 요청에 자주 무료로 일해 주었으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알바노 모원에 1959년 12월 1일에 입회하여 2년간 초기 양성기를 보냈다. 1960년 6월 14일에 수도복 착복을 청하며 “저는 완덕의 삶을 열렬히 희망하며 주님의 은총으로 성소의 의무를 다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하며, 단순하고 겸손하게 빠스토렐라로써 축성봉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1960년 9월 2일 수련기를 시작하여 그 다음 해인 1961년 9월 3일에 마리아 아르미다라는 수도명으로 첫 서원을 했습니다. 첫 서원 후 살리체도 파나로(모데나) 공동체로 파견되어 1961년 9월부터 1969년 8월까지 생활했습니다. “예비 신학교”로 성소사목을 위해 봉헌된 이 집에서 로사 수녀님은 재단사로서의 자신의 재능을 관대하게 내어 놓으며 성소 사목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로사수녀님은 실천적인 면에서 뛰어 났으며 재단사 자격을 취득했고, 1969~1970년에 모원에서 면학기를 보냈으며 1971년에 로마의 “승리의 모후” 학교에서 교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수녀님은 첫 서원을 청하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고, 본당 사목을 통하여 영혼들의 선익을 위해 저의 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기쁨을 느낍니다.(...)”

저는 이것이 그분의 더 큰 영광과 제 영혼의 선을 위한 하느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로사 수녀님이 표현하는 말들은 주님께 속함과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항상 기쁘게 살아가려 했음을 드러냅니다.

로사 수녀님을 동반했던 양성장들은 수녀님에 대해서 “신심생활에 열심하고, 모든 것 안에서 사도직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좋은 품성을 가지고, 예민함을 가졌으며,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했으며 말 수는 적었지만 사교적 이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으며 청빈을 좋아했고 수도회를 사랑하고 관대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관대함으로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사도직과 여러 가지 직무들을 거의 “순례자”의 형태로 사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 1970 Pressano di Lavis (TN); 1972 Gizzeria (CS); 1976 Caltagirone (CT); 1981 Castellammare – S. Antonio (NA); 1982 Crosia (CS); nel 1986 Rossano stazione (CS); 1988 Castanea delle Furie (ME); 1995 Albano Laziale - sede Provinciale; 1998 Castellammare – Annunziatella; 2006 Sambiase (CZ); 2009 Albano - “Comunità Maria Madre del Divin Pastore”; 2010년 다시 Castanea. 수녀님은 가정사목 안에서 거의 활동을 했으며 여러 유치원에서 가르쳤습니다. 크로시아와 카스타네아 공동체에서는 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2011년부터 로사수녀님은 모원으로 돌아와 몇 년 간 심장 질환을 앓았으며, 승모판막 폐쇄 부전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호흡 곤란으로 만성 기관지염을 동반한 중증 심부전증을 앓았습니다. 수녀님은 자신이 했던 사도직과 그 지역들을 늘 기억했습니다. 수녀님들에게 자신이 살았던 본당과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자주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상냥하고 온유하게 대했던 기억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알바노에서 지내며, 계속해서 단순하고 관대하며, 온순하고 모든 이들을 환대하며 단순한 관계 안에서 기쁘게 사셨습니다. 신체적 유약함이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충실하게 사는 것과 수도회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결코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부의 자비에 로사수녀님을 맡겨 드리며, 성 코르넬리오와 치쁘리아노를 닮아, 교회 일치를 위해 열심히 협력하기 위하여, 항상 더 관대하고 강하며 신앙 안에서 항구할 수 있도록 수녀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Sr Aminta Sarmiento Puentes

총장

2017년 9월 16일, 로마

성 코르넬리오와 치쁘리아노의 기념일